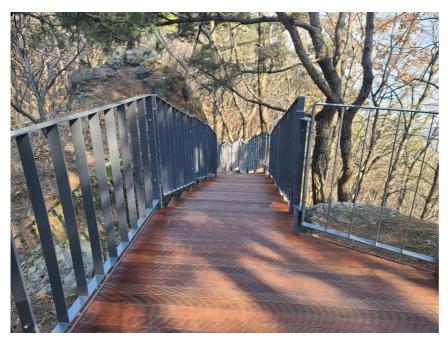


# 통제됐던 대구 앞산 등산로 다시 개방...1.9km 구간

송고시간 | 2022-02-07 10:18





관광 명소화 사업 [대구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대구=연합뉴스) 류성무 기자 = 대구시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통제한 앞산 등산로를 재개방했다 고 7일 밝혔다.

안일사~앞산 전망대~능운정~정상 약 1.9km 구간을 시민들이 다시 다닐 수 있게 됐다.

시는 48억원(국비 12억원 포함)의 사업비를 들여 앞산 전망대와 능운정·팔각정 리모델링, 쉼터 7개소 조성, 등산로 정 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. 이 사업은 오는 5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.























#### 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

전망대 [대구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권영진 대구시장은 "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, 시민 편의를 위해 등산로를 개방하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tjdan@yna.co.kr

##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2/02/07 10:18 송고

#앞산 #등산로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**▶** 01:18 **▶** 02: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췔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

결국 우크라에

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원 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 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## 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☑ 150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

**3**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 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###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**비주얼뉴스**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**테미별뉴스**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시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**광고**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 뉴스
 모바일 앱
 보다시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ي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90.1229 | 발행일자 1990.12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 성기홍 [편집인] 조채희

Yonhapnev